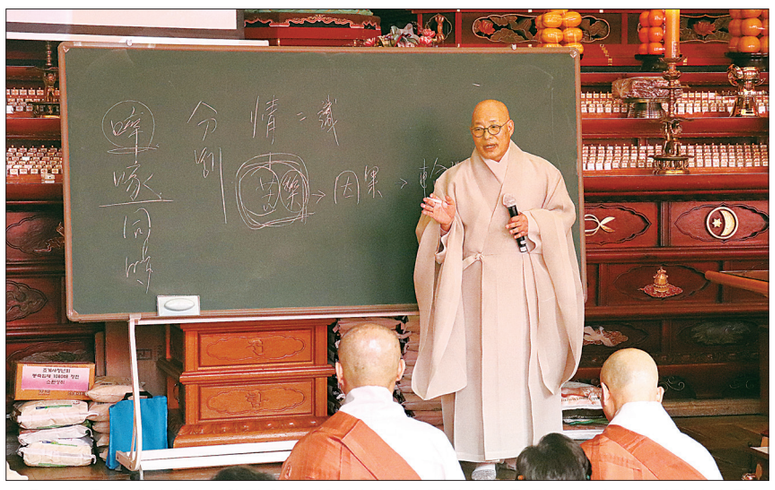
“선명상 보급, 이래서 필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열반절 법회 · 군승안거에서
‘선명상’ 강조 특별법문 설해

이민우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에서 봉행된 열반재일 법회에서 직접 분필을 잡고 판서하며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선명상 보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진우 스님은 3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재일 특별정진기간’의 회향을 맞아 선명상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한 데 이어 28일 계룡대 호국홍제사에서 봉행된 군종특별교구 ‘2024년 군승 안거·포살법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문을 했다.

진우 스님은 열반재일 법문에서 출가재일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분필을 잡고 선명상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즐거움이 생기면 그와 같은 크기의 괴로움이 생긴다. 고락의 감정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인과에 의거해 괴로움이 없다면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음을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우 스님은 ‘꽃’을 예시로 들었다. 스님은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지만 꽃은 흙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꽃을 보고 좋아진 기분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내린 평가”라며 “현상을 평가하는 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동이지 현상 자체에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연기와 인연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세상에서 고락은 필연적이기에 명상으로 감정을 분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감정이라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명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방법과 장소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군승 안거에서 장병들을 위한 선명상 지도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아는 명상에 불교의 선(禪)을 얹은 것은 불교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수행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 감정을 계속 내려놓고 그로 인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선명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대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년 장병들이 혈기왕성한 만큼 감정의 기복도 클 것으로 내다보며, 이를 지도하는 군승들에게 장병들의 마음공부가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나 스스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은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왜 선명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에 혜민 스님

제10기 추가 위원으로 위촉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0기 국제교류위원으로 혜민 스님을 추가 위촉했다.〈사진〉

국제교류위는 혜민 스님(전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을 신규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불교계와 종교 간 국제회의가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3월까지 진행한 국제팀 주요 업무와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국제교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다뤄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포교사, 불교 외국어 통·번역가 및 기타 불교관련 외국어를 사용하는 단체 대상 불교외국어인재 워크숍과 9개국 주한외국대사 및 대사부인이 참석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5월엔 ‘제19차 UN베삭데이’ 참석, 9월 말 국제선명상대회, 10월경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행사,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 불교 관련 해외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민우 기자

류완하 총장 “글로컬대학 경쟁력 구축”

동국대 WISE캠, 총장 취임식



새로 취임한 류완화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이 “역사·문화·관광 특성화를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를 글로컬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취임 일성을 내놨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3월 26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류완화 WISE캠퍼스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류완하 총장의 취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의 방법과 체계를 혁신하고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융합하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전법을 실천해 인재 양성에 용맹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류 총장은 “우리 대학은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학문 간의 벽 허물기, 탈캠퍼스, 지·산학 연계를 통해 대학을 혁신해 가고 있다”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에너지와 역사문화, 관광 두 가지 방향으로 대학을 혁신하고 융합한 글로컬 학제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의 역사와 전통, 건학 이념을 계승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총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며, WISE캠퍼스 동국미디어센터장·도서관장·평생교육원장 겸 생태교육원장·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맞아 익명의 기부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태영장학회, 동경장학회, 동국후원의집, 동국대학교 직할경주동창회, 조경학과 총동문회, ROTC 총동문회, 삼보장학회, 진불선원 주지 무아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가정교육과 현직교사 동문회에서 WISE캠퍼스 발전기금으로 8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진우 스님 “승가대학 교육과정 조정 계획”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연수서
종단 교육 관련 복안 드러내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에서 승가대학 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밝힌 진우 스님.

거듭된 출가자 감소로 중앙승가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승가대학까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나올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승가대학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3월 28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에서 법문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운문사승가대학 35회 원법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총무원 일원화 추진을 언급하며 “운문사승가대학은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총무원 일원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미래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총무원 일원화로 인해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중앙종무기관 통합 이후에도 종단의 교육·포교사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은 “업무 분장 개념으로 보면 (교육·포교원이 별원이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며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원이나 포교원의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서 조정을 통해 보강할 건 더 보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재 입산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방승가대학에 들어가는 학인 숫자도 적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해 안에 지방, 중앙승가대학이 살 수 있고 행자교육원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보강하려고 막바지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문사승가대학이 축소되거나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한 진우 스님은 한문교육 세대를 지난 현대사회에서 한국어로 해석된 승가 경전교육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과정 보강의 연장선상에서 교과 내용도 일원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또 “좀 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다시 구성을 하려 한다”면서도 “모든 종도들, 모든 학인들, 모든 교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원장 재임 시절 승가대학 32개 교과를 27개 교과로 정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원과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진우 스님의 복안은 총무원 일원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호섭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2024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전 결계 등재 시 지원됨)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8(2024)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성 화